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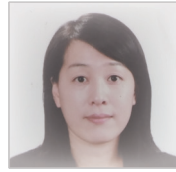
사역자 소개합니다



담당 사역자

- **최중훈** 목사
010-5390-7668

*서강대학교 철학과 졸업
*충신대학교신학대학원 M.div 졸업
*Freedhardman University M.Min 졸업



어린이 담당 사역자

- **강선화** 사모
010-8980-7668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 석사
담당: 주일학교/ 새싹 In Grace

One Point

교회와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One Point가 되어 한 주를 살아 갑니다.

One Point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과 교육 콘텐츠를 집중합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 1시간만 말씀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교육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타이핑 '은혜안에 교회')

in Grace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쁨과 감격

Worship Service

	주일예배	수요예배 및 모임	금요기도회	새벽기도
시간	1부: 오전 9시 (제례)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3시	오전 10:30 (One Bible School) 저녁: 7시 (예배)	저녁: 9시	새벽 5:30 (월~금)
장소	본당	본당	본당	본당



주일예배

하나님을 예배함이 삶의 생명력이며 말씀의 효력이 지혜와 빛임을 경험하는 예배



새벽예배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를 위해 원론적이며 단순한 말씀과 그에 따른 기도로 시작



수요강좌 및 예배

오전에는 성경 권별 강좌를 진행하여 쉽고 단순하게, 그러나 적용에서 깊고 넓게 접근하여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게 합니다.



금요기도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는 일신의 시간입니다.

새롭게 일신된 영육이 더욱 말씀을 찾아갑니다.

저녁은 예배로 모입니다.

One Point 예배 (교육부서, 가정, 공동체)

	교육부서	가정예배 및 모임	공동체 예배 및 모임
시간	2부 예배 후 20분	목요일 (또는 가정 제향)	주중 원하는 요일
장소	어린이부: 사랑실 중고등부: 믿음실 청년부: 소망실 장년부: 본당	각 가정	리더 재량



ONE POINT

*교회와 가정 그리고 각 공동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One Point가 되어 같은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주말부부가 아닌 가정이 곧 교회가 되어 일일부부가 됩니다.

*One Point 예배의 필요성

시설 교육이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은 20%를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168시간 중 주일 1시간만 교회에 교육에 투자한다면 결과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인격에 미치는 말씀의 영향력은 과연 몇%일까요? 168시간을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버 스 212, 1000, 1004
자가용 네비게이션
가락마을22단지 중흥S클래스
에듀힐스아파트

www://blog.daum.net/koon610

070-4141-0927 / 010-5390-7668

새싹inGrace 토요스쿨 010-8980-7668

세종특별자치시 마음로 322(2202동 202호)
(우) 30062 (지번) 고운동 1387

은혜안에 교회

CHURCH IN GRACE www://blog.daum.net/koon610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과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 위에

새롭게 그리고 다시

그려 나가며
세우려 합니다!

In Grace 대한예수교장로회
은혜안에교회

부르며 찾습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말씀의 도화지 위에.....,



in Grace

요즘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공간에 '새롭게 그리고 다시' 그려나가며 세우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뛰어나다고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 이름만 거명해도 바로 알만한 사람들의 생각, 수백년동안 진리라고 외쳐 왔던 교단들의 주장들, 저명한 학자들의 교리, 주장, 정형화된 서지학들

이제는 좀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 어떠한 누구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목소리를 높이는 성역화된 지역에 갇혀 버리는 것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너가 알고 있는 말씀,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싶습니다.

제가 맞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 있는 귀한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며 인정합니다. 저 또한 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냥, 이제는, 좀, 제발, 내가 사랑하는 말씀을 그저 사랑하며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난도질하듯 성경을 파헤쳐 분석하지는 못해도 내가 사랑하며, 우리가 사랑하는 그 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마치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에 정착하기 시작한 믿음의 선배들 처럼 세종시에서 그저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기 소망하는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아무것도 그려져 있지 않은 말씀의 도화지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주역이 되셔서 아무것도 없는 교회를 세워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생 주님의 일만 하다 죽고 싶은
최중훈 목사, 강선화 사모 드림

그리스도의 말씀

